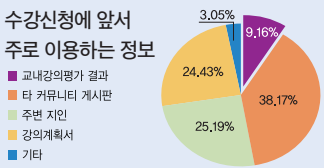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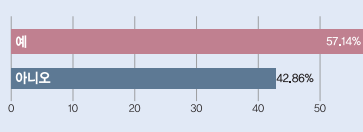


## 4» 강의평가실효성 제고

수강신청에 앞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법 교육 수혜 경험



## 5»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⑤



## 2017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안내

유형 : (1)희망과목담기 (2)예비과목담기  
실시기간 : 1차 2017. 06. 19(월) 10:00 ~ 06. 29(목) 17:00  
2차 2017. 07. 19(수) 10:00 ~ 07. 21(금) 17:00  
참여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 및 복학 예정 휴학생  
대상강좌 : 2017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

# 완공까지 한달 기존 건물은?

## SPACE21 공간 조정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SPACE21 건물 신축에 따라 이전하는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대학이 사용하던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SPACE21 완공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기존 건물 사용을 원하는 단과대는 많지만, 아직 본부에서는 공식적인 계획을 밝힌 바 없다.

신축 건물로 인해 비는 공간은 약 5,000평이다. 당장 9월부터 5,000평이 공실이 되지만,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간 부족을 호소하던 여러 단과대학은 적어도 올해까지 여전히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단과대가 기존 건물을 원하지만, 정작 학교 측과 의미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과대학은 의과대학뿐이다. 의과대학 행정실 측은 “이미 간호과학대학을 사용하기로 총장실 결정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2학기에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내년 1학기부터 강의실과 연구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과대학 행정실 측은 “본부에서 먼저 제안한 논의 테이블은 없다”며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끝에 6월 중순 문과대학 교수와 학교 측 관계자들이 함께 빈 공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경대학 행정실은 “학장을 통해 빈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 측과 논의 테이블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간 확보가 절실한 단과대학으로서 답답한 노릇이다.

학교 측은 “기존 건물 사용에 대한 계획이 나올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총무관리처 정진봉 처장은 “이과대학의 경우 아직

이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이사 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공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건물 사용을 요구하는 단과대학과 부서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을 밝힐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장실 정진무 과장 또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축 건물로 들어가는 단과대학의 이사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관리팀, 재정 예산처 등 관련 부서와 공간사용을 원하는 단과대학, 부서들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단과대학의 경우 건물의 도면이 나올 때부터 단과대학 구성원과 학교 측이 함께 논의를 해왔다. 기존 건물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지금과는 상반된 행보이다.

학교 측의 이러한 태도에 학생회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정경대학 학생회 우예림(언론정보학 2015) 회장은 “각 단과대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본부에 밝힌 상태지만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일단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경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부총장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문과대학 학생회 김지현(영어통번역학 2015) 회장 또한 “담당 부서가 확실치 않다면 학생회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기존 공간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무하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만 난무하다”며 “기존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해 복원된 ‘청년’

1989년에 그려진 벽화 ‘청년’은 청년들의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청년’은 수도권 대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중벽화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을 겸해 지난 9일 이뤄진 ‘청년’ 복원 기념식에서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 관장은 “경희대 벽화는 팍팍한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21세기 청년들에게 저항정신의 회복을 권면하고 있다”고 평했다. (글=김지담 기자, 사진=이수형 기자)

## Newsmaker

Humans of KyungHee University  
박건우(체육학 2016) 디렉터



## ‘삶의 소중함’과 ‘공감’을 이끌어내다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 매일 SNS에는 여러 정보가 정신없이 올라온다. 그 중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Humans of KyungHee University’가 바로 그들이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저 좋아서 한다는 Humans of KHU의 박건우(체육학 2016) 디렉터를 만나봤다.

Humans of KHU는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들은 진솔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Humans of New York’의 형식에 착안해 우리학교에 적용한 콘텐츠다.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인터뷰 여부를 묻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건우(체육학 2016) 디렉터는 인간관계에 지쳐있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람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느꼈고 해답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며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친 감정을 회복하고 치유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Humans of KHU를 시작한 계기를 말했다.

현재 Humans of KHU는 촬영 및 인터뷰를 담당하는 5명과 영어번역을 담당하는 인원 2명으로 운영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개의 게시물을 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 자발적인 하지만 아무런 지원 없는 일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박 디렉터는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장비와 자금상의 문제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인지도가 낮고 신상을 노출해야 하는 형식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들은 한국어 인터뷰를 영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때면 사진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인터뷰를 영어로 번역한 후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디렉터는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 우리학교의 구성원이라 생각했다”며 “외국인 학생들의 소중한 삶도 담아내고자 영어 인터뷰를 함께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시작한 인터뷰  
지친 감정을 회복하고  
일상의 특별함을 담다

앞으로의 계획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박 디렉터는 ‘Humans of’ 콘텐츠를 운영하는 다른 학교들을 소개하며 “페이스북에만 게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시회를 열 계획이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모아 책을 출간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제캠퍼스에서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 학기부터 서울캠퍼스까지 확장할 계획인 Humans of KHU. “학교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의 일상이라고 해도 모두 특별하고 그 일상의 특별함을 담고자 한다”는 박 군과 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 알림

## 이번 호가 2017학년도 1학기 중간호입니다

## 방중에도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카카오톡 오픈ID : 대학주보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트위터 : @khunes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교수 칼럼

## 교육적페 청산과 대학의 미래

이기라(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처우개선” VS “무리한 요구”

## 중핵교과 교수 처우개선 논란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지난 7일 학교 곳곳에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교수회의) 명의로 대자보가 붙었다. “저희는 후마의 중핵교과 소속 객원교수·시간 강사들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대자보는 후마에서 중핵교과 과목 ‘인간의 가치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을 조인원 총장에게 직접 요구했다. 해당

대자보에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관련기사 3면)

중핵교과 교수회의의 요구사안은 크게 4가지로 ▲후마 출범 이후 7년간 유지돼온 교수임금 인상 ▲시간강사들의 객원교수로의 점진적 신분전환 ▲객원교수 전원의 신분안정화 ▲서울캠퍼스(서울캠)와 동일 비율로 국제캠퍼스(국제캠) 객원교수들의 비정년전임으로의 즉각적인 신분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대자보 게시 이전인 2일에는 교수회의가 후마 대학장 직무대리인 서울캠 부총장실을 방문해 합의성명

을 제출하기도 했다.

후마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확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양교육을 위해 지난 2009년 말부터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논의를 시작해 2011년 3월 최종 설립됐다. 이후 후마는 우리대학의 상징이 되면서 인문학 교육 중심대학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으며 전공과 취업만을 중시하던 기존 대학의 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학부생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후마는 일반 단과대학과는 다르게 객원교수와 시간강사

의 비중이 높다. 교수회의는 “후마를 출범시키는 과정부터 참여했던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들이 지금까지 7년간 근무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내적가치를 인정받은 강사들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길 바라지만 학교 측에선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애초에 후마 객원교수들은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들에 비해 좋은 여건에서 출발했다”며 “전임교원으로의 전환도 이뤄지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요구는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선

사설

6월 항쟁 30년, 청년 벽화 28년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하라

6월 9일,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벽에 그려진 ‘청년’ 벽화 복원 사업이 완료됐다. 낡고 흐릿했던 벽화는 선명한 빛깔을 찾았다. ‘팔뚝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한 청년 벽화는 지난 세월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다. 술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배움터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그림을 그렸다.

과거의 대학은 그랬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건물에 벽화를 그리고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장이었다. 대학생은 거리로 나가 최루탄에 맞았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이름을 댈 수조차 없는 많은 이들이 6월에 흘린 피땀은 민주주의가 되어 이 땅을 적셨다. 그 결과로 군부 독재는 물러나고 제도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이 땅에 찾아왔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됐다. 민주주의는 우리 삶을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됐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벽화의 빛도 바래갔다. 빛바랜 벽화는 학내의 풍경으로 박제되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들은 드물어졌다. ‘팔뚝이’에 담겼던 시대의 의미를 전하는 이는 사라졌고 심지어는 ‘빨갱이’와 같은 그릇된 의미로 와전되기도 했다. 지난세기 말에는 문리대 외벽공사를 진행하며 철거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청년 벽화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다른 대학에 그려졌던 벽화들은 항쟁이 사라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건물에 자리를 내 줬다.

그동안 대학도 빛을 바랬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문 기관은 학생의 취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쥐고 흔드는 지원 사업에 정책을 바뀌가며 일희일비해야 했다.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급급한 사이,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은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됐다.

시대가 다시 변했다. 시민은 촛불을 들었고 광장에 몰려가 지난 10년간 억눌렸던 목소리를 터트렸다. 참여의 의미가 되살아났고 변화를 경험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강렬했다. 대표자를 앉히는데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정보를 찾고 위정자를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한 2017년의 6월에 청년벽화가 색을 찾았다. 20여일에 걸친 복원작업의 결과다. 동문, 학생, 직원이 주축이 돼 6월 민주항쟁 30년의 의미를 다시 짚었다. 선명해진 벽화를 바라보며, 30년 전의 6월을 돌아보며 다시금 대학에 대해 생각한다. 작금 우리사회의 대학은 지난 겨울 과외수업을 통해 성숙해진 민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당장 술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도 비좁은 공간에 부대끼는 이들이 많지만 공간 이전 계획은 안개 속이다. 부조리를 자정해 나가는 학생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관행과 관습으로 운영되는 학생회도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과정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년이 지켜본 30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월호 막말’ 파문 일어

해당 강사 공개 사과

미디어 여론동향 2017. 5. 29 ~ 6. 1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전공수업 강사가 강의 도중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카카오톡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됐다.((1보) ‘세월호 막말 논란’ 강사 수업 녹취본 공개/대학주보 온라인, 2017.5.30)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매체는 우리학교 강사가 4월 13일 수업 중 “세월호 학생들이 탈출할 생각은 안하고 카카오톡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급이 알려지며 ‘세월호 희생자의 피해 원인을 개인의 행동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시의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뿐 수업 내용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는 관점

만평



이 주의 주제 -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미래

빅문,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 한 학기 동안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 짚어보기’ 연재를 통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빅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었다. 그 내용은 빅문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연재된 기사만을 읽다보면 빅문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세상에 나온 미숙아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접한 빅문은 ‘자라나는 아이’였다. 취재를 거듭하며 현행 빅문의 많은 부분은 처음부터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고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빅문이 시작되고 이제 겨우 세 학기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간 꾸준히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며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중핵이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았다. 자라나는 아이가 완벽하지 않듯, 이제 시작인지 얼마 안 된 빅문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빅문 자체를 폐지하거나 핵심 시스템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빅문의 도입 취지를 저버리는 일이자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함양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이 부딪히고 있다.

이후 지난 1일 수업에서 해당 강사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2보) “과제 의도 제대로 전달 못한 잘못 인정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6.1) 그는 “제도와 시스템 등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 이번 과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제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잘못을 인정했다. 강사는 학교 측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이미 학기 말을 앞두고 있고 수업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남은 수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학과는 지난달 29일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으며, 오는 14일 학과장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공정화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한 학과의 공금 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저희는 학과 공금의 행방을 모릅니다’라는 글(#경희숲\_22181, 2017.6.1)의 글쓴이는 ‘3월, 과장을 주문했고 많이 늦어져 5월 초에 받았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 있을 거라는 과대의 공지가 있었는데 이후 과대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썼

빅문을 개선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학본부의 지원’이다. 취재 중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관계자가 많았다. 그들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현실의 벽이 빅문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내놓은 ‘자랑스러운’ 중핵교과이며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원의 부족으로 빅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지금의 상황은 아이러니다.

지원 부족은 학생들의 불만과도 직결된다. 학생들이 제기하는 불만의 대부분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니 미봉책으로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꺼내게 된다. 자연의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킨다는 빅문의 본래 취지는 점차 빛이 바랜다. 가치를 잃어가는 빅문을 듣는 학생들은 이를 수강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빅문을 귀찮지만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의 관점을 배우고 인문학과 의 접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애정 어린 시각으로 함께 해줄 것을 희망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빅문은 앞으로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며 변화할 것이다. 막상 다음 학기만 해도 많은 부분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한 학기에 걸쳐 달려온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연재를 마치며,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

다. 글쓴이는 ‘과대가 공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고 금액을 속이며 계속 말을 바꿨다’며 ‘업체에서 둘러싼 자연 보상금 35만 원의 행방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대화방 캡처도 첨부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50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안 들켰으면 뒷주머니 찔거나 축제 때 본인이 선심 쓰듯 썼겠지?’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해당 과대는 논란이 계속 되자 결국 사퇴했다.

정연모(전자공학) 교수가 ‘하수도 탐색을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드론이 하수도를 조사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6.2) 특허는 사람이나 기존 CCTV 로봇이 진입하지 못하는 하수도 구간에 드론을 투입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교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드론 경쟁력 강화와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착안했다. 그가 제안한 드론은 하수도 내 360도 영상 촬영과 퇴적물 유무 판단, 유해가스 수치 파악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정 교수는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드론’, ‘생체정보 연동 드론 제어’ 등 17건의 드론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나를 이기고 진심으로  
타인에게 다가갈 시대정신

세시봉

기호웅 (편집장)



현종일과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났다. 두 기념일의 모습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현종일 추념식에서 배우 이보영 씨가 낭독한 헌시는 우리나라의 쓰라린 상처의 역사에 다시금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9일 교내에서 진행된 문과대 청년벽화 복원행사에 참여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남은 자들의 책임을 무겁게 일깨웠다.

정치적 이슈들이 쟁점화 될 때, 좌우 대립은 우리나라 역사적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환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런 흐름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책·공약과 가치·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뉴스들은 지난 몇 년 전의 뉴스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과 이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이 당장 해소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내일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주류에서 이탈한 ‘비주류’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많은 이들의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침체의 시기엔 희생과 침묵을 강요했고, 부흥의 시기엔 역할과 대우를 무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성이나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재기할 수 없는 파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회적 안정과 복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와 학생들에게 정의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픔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개인은 여러 성장통과 사연을 거치며 오늘을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한 나머지 타인의 아픔을 무시하곤 한다.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류의 논리와 흐름만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왔다. 이에 따라 발생했던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특수한 개인의 일이라 여기면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보고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또 다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간다움’이란, 결국 타인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2007년 폐간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통해서도 알려진 <라이프(LIFE)>지의 모토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말이라 생각한다.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자. 학내사안에서부터. 시간강사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장애인 학생, 유학생 등 아직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



# 7년 된 후마니타스칼리지, 굶앀던 교수처우문제 갈등 터지나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가 학교 측에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교수임금에 대한 문제다. 교수회의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후마가 설립된 이후 7년간 객원교수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며 “대졸 초임연봉이 평균 3,000만원이 넘는데 객원교수들이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교수연령대에 비해 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교수법연구와 개발에 제한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삼출(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정도라도 보전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 7년간 동결된 교수임금 문제

이와 같은 교수회의의 주장에 대해 후마 유정완 학장은 “7년 간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후마 객원교수들은 다른 단과대학 교수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으며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유 학장에 따르면 후마 객원교수들은 9시수 강의를 기준으로 250만 원, 12시수 강의 기준 3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단과대학 9시수 180만 원보다 높고 석좌교수가 받을 수 있는 207만 원에 비해 높은 금액이다. 또한 “다른 단과대학 비전임교수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4대 보험을 적용할 뿐 아니라 방중활동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며 “후마 설립 초기 다른 단과대학에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행정원과 교무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후마의 교수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객원교수·시간강사의 신분안정화

객원교수의 신분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교수회의 김종인 교수는 “지난 7년간 우리 학교에서 일을 했다면 이는 내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것이라 판단된다”며 “일시적으로 객원교수 전원을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전원전환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학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회의 이삼출 교수는 “비정년전임 교수는 부교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의전담 교수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객원교수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후마에서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그리고 시간강사 사이에 큰 역할의 차이가 없고 함께 설립초기



지난 7일 중앙게시판에 게시된 중핵교과 교수회의의 대자보를 학생들이 보고 있다.

(사진=이수형 기자)

### 중핵교과 교수회의

- 7년간 동결된 임금 올려 달라
- 교수신분 안정화 해 달라
- 양 캠퍼 전임교수 전환비율 차이
- 시간강사 처우개선 해 달라

### 후마니타스칼리지 학교 측

- 다른 단과대에 비해 높은 임금
- 연속발령으로 안정화된 상태
- 국제캠도 현재 진행 중
- 현재 논의 중, 확답은 어려워

부터 후마를 위해 일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마 설립을 추진했던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 유 학장은 교수임금문제에 대해 “현재 후마 객원교수들은 기본적인 요건만 만족시키면 연속발령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초 후마를 설립하고 교수님들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객원교수의 신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서울캠과 국제캠의 비정년 전임교수 차별

교수회의는 교수들의 소속에 따라서도 부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교수회의 이 교수는 “객원교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캠퍼스 소속이 결정됐으며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라며 “다음 학기에는 소속을 바꾸겠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후마 초기에 서울캠

과 국제캠 사이에 임금과 대우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없었기 때문에 교수들도 별 대응이 없었지만 지난 가을 인사발령 때 서울캠에서만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임교수 전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후마 출범 당시 중핵교과 PD업무를 맡았던 최재구(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역시 “후마 중핵교과 객원교수 35명의 캠퍼스 발령이 서울캠 14명, 국제캠 21명으로 임의적으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캠과 동일 비율로 국제캠퍼스(국제캠) 객원교수들을 비정년전임교수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 후마 유 학장은 “교수의 신분전환 문제는 전임교수들과의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후마 학장실 측은 “국제캠이 인사를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며 “현재 객원교수 2명을 전임교수로 전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수회의 김종인 교수는 “교수 2명의 신분전환은 서울캠에서 진행 된 전환비율에 비하면 너무 큰 차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

교수회의는 객원교수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시간강사들의 문제점 또한 제시했다. 시간강사로 중핵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신종식(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간강사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며 “후마니타스 정신에 맞지 않는 교과목과 시간강사 처우에 대해 학교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후마 초기와 달리 시간강사들이 담당하던 교과목이 줄고 전임교수가 진행하는 교과목이 생겼다”라며 “학교 측은 중북학과 폐지로 인한 결정이라 설명하지만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수의 수업시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과목 등이 후마의 정신과 맞지 않은 교과목들이 생겼으며 독립연구와 같이 현재 우리학교 상황에 맞지 않은 제도를 만들어 후마의 교양역량을 낮추고 있다”며 “후마 내부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교수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평가 결과가 2학기 연속 80점 미만일 경우 쫓린다”라며 강의평가가 전임교수와 달리 인사고과에 높게 적용되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후마 유 학장은 “국립대 시간강사 시급이 80,000원에서 90,000원 임에 비하면 적지만 일반 사립대의 경우 20,000원대의 대학들도 있다”며 “51,000원의 우리학교 시급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강사의 객원교수로의 전환은 현재 논의 중인 문제이기기는 하지만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수회의 측은 “양 캠퍼 학장들과 대학장 대리를 맡고 있는 부총장님과 총장님께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소모적인 말들만 오갈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관련 문제들을 여론에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후마 유 학장은 “시민교육·기초교과·배분이수 등 다른 계열의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중핵교과 교수들만 처우개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철(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양 캠퍼스 간 전환 비율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캠퍼스가 통합 된지 오래됐지만 서로 다른 행정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불러일으킨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신뢰의 문제를 먼저 일으킨 학교가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마 설립 당시 중핵교과 PD를 맡았던 최재구 교수는 “객원교수 35명의 소속 캠퍼스 발령이 임의적이었으며 7년 동안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오랫동안 고생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 등 교수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는 17일 진행될 중핵교과 워크숍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토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지만 갈등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예정이다. 학교 측은 후마 대학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서울캠 한균태 부총장과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 국제캠 후마 이영식 학장이 서로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곧바로 뚜렷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수회의 측은 해당 문제를 꾸준히 환기시켜 공론화 할 예정임을 밝혔다.

##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 ●계절학기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7.05.12(금)	
학점교류생	추천기간: 2017.05.31(수) 17:00까지	학번부여SMS안내 문자 발송
	학번부여: 2017.06.09(금)	
수강신청기간	2017.06.14(수) 10:30 ~ 06.15(목)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시 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7.06.15(목) 12:00 (1차) 2017.06.21(수)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7.06.16(금) ~ 06.20(화)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7.06.21(수)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2차 폐강과목 수강생에 한함)
수업기간	2017.06.22(목) ~ 07.13(목)	
성적열람일	2017.07.13(목) ~ 07.14(금)	
성적정정일	2017.07.17(일) ~ 07.18(화)	

### ●수업안내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 ~ 11:50	국제 캠퍼스	1학점/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 ~ 14:50						
		1교시	10:00 ~ 11:50						
	2학점	2교시	13:00 ~ 14:50		3학점	1교시	09:00 ~ 11:45		
		3교시	13:00 ~ 14:50					2교시	13:00 ~ 16:45

나.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2017.05.12(금)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국제교류생,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타대학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

나. 수강신청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학점교류생 동일)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매뉴얼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인력사항: 학년(2017학년도, 학기) 이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학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기가 불가하므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가. 수강취소 방법: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동봉) 나. 환불기준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7.06.21(화) 17:00	전액 환불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7.06.22(목) ~ 06.28(수) 17:00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개시일 1/3 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7.06.29(수) ~ 2017.07.03(일) 17:00	수강료 1/2 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수강신청한 과목의 폐강으로 인한 수강취소일 경우에도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환불금액 지급 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 7교/세분(자유사) 20명 이상

나. 전공강좌 개설 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7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 수강신청 불가

라. BO 이상 성적 받은 경우 계절학기 | 재수강신청 불가(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강좌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시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상 8회, 단 6학년은 통상 10회 6학년제는 통상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가함

###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 6월 셋째 주(6.12~6.16)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 · 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하세요.'

###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신한캐피탈 채용면담	6.12(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진사현교수)	6.13(화) 13:00-15:00	청운관 B11호	취업특강

### ●취업방법: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클릭 - 원로)

\* 신청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사전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당일 해당 장소 출납문 쪽에 비치함.

### ●출석할조전 필독: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신청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 2.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원 컨설턴트)	이연의	오비스홀 366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신청
		박언경	제1법학관 107-2호	
		홍상기, 오신철	청운관 6번 상담실	

●상담 신청자의무: 취업준비도 겸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필수

●유의사항

· 상담 당일 취소 불가(상담 당일 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및 지도배)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 3.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진로상담)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와) ~ 3학년

●상담 내용: 진로의 선택의 중요성, 진로선택방법, 취업진로지원처 소개 등

상담유형	일시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진로상담	6.16(금), 15:00-16:00	한상백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회의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 4.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대상: 서류전형에 합격한 면접 대상자

●상담 내용: 모면신청, 면접유의사항

●준비물: 분자기소개, 기업분석지침하는 회사의 세계적인 전망, 미션, 비전, 지원동기, 마지막 하고싶은말

상담유형	일시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취업상담	6.14(수), 15:00-16:00	한상백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회의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 5. JSC15기, SJC17기 신청안내

컨설팅	신청기간	컨설팅 일정	모집대상	신청방법
JSC 15기	6.1(수)	6.29(목) ~ 11.30(목) 약 5개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안내 참고	· 재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연수신청 · 졸업생: e-mail 접수
SJC 17기	6.21(수)	6.30(금) ~ 8.28(월) 약 10주		종합정보시스템 - 연수신청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 ~ 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기획

강의평가 낮은 실효성, 교수 교육 제도화로 해결 꾀한다

강의평가 피드백 개선 방안 점검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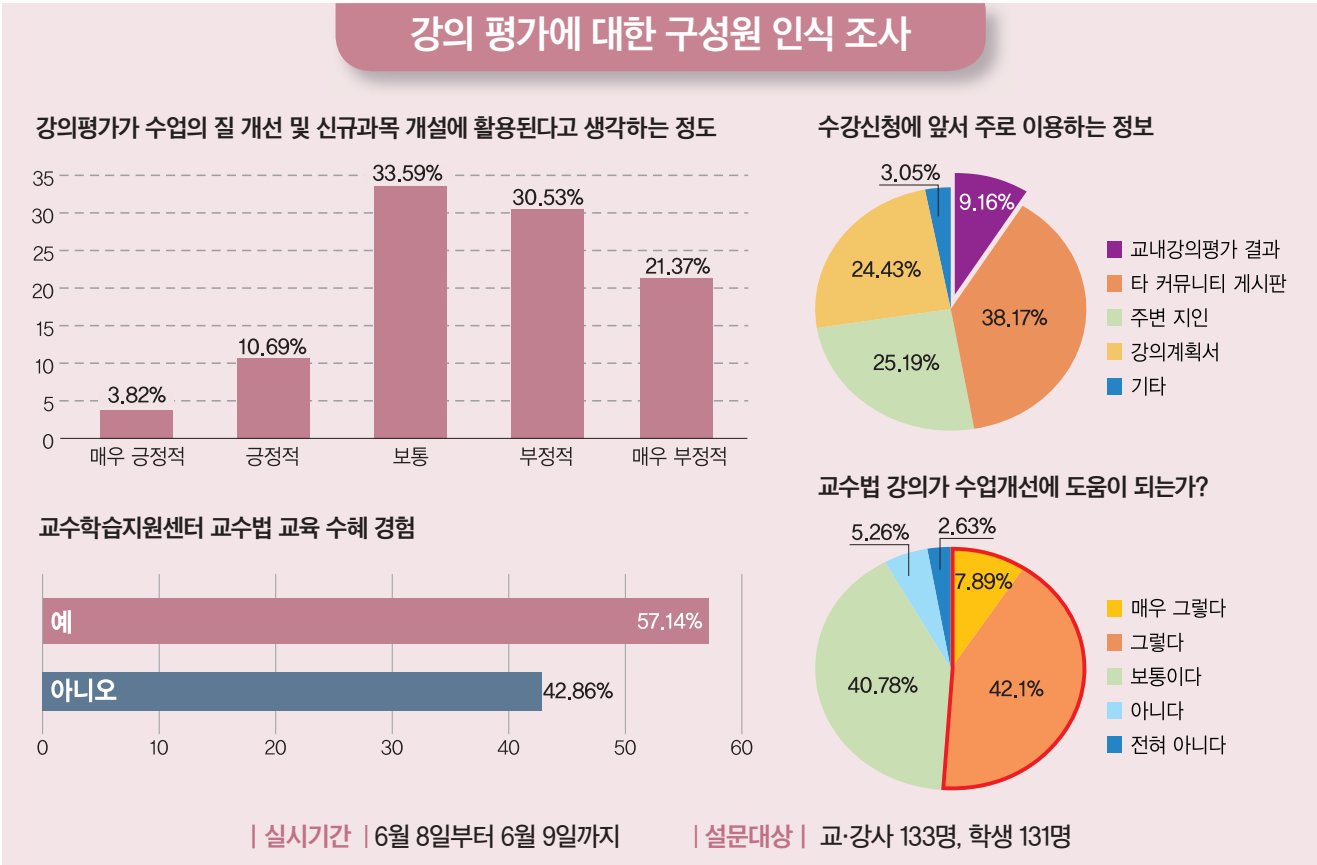
이제는 익숙해진 매 학기 말 강의평가가 처음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 강의평가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1년의 세월 동안 강의평가는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평가 도입, 강의평가결과와 공개, 수시강의평가 도입과 폐지 등의 수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매 학기 강의평가는 약 8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매년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신문은 학생과 교·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강의평가에 대한 인식’에 관해 물었다. 결과, 응답한 학생의 ‘93.13%’가 현 강의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강사 역시 ‘강의평가 결과에 따르는 조치의 방향성’을 묻는 주관식 문항 답변을 통해 평가 문항의 구성, 불이익 위주의 조치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의평가 어떻게 운영될까?

교무처 측에선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는 등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래 도입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강의평가에 대한 학내 구성원과 본부 차원의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향후 개편 논의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강의평가는 모든 강좌가 동일하게 ▲내용의 체계성 ▲평가의 공정성 ▲전반적 만족도 등을 묻는 8개의 객관식 필수 문항과 수업의 장·단점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개방형 선택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추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성적조치기간을 차등한다. 이번 학기의 경우 전체 학생은 7월 3일부터 7월 5일 사이 성적조치가 가능하다. 강의평가를 실시한 학생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보다 먼저 성적조치를 할 수 있다.

구성원이 지적하는 해결과제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강사들의 ▲수업



지속 여부 ▲기준과목 폐지 ▲수강신청 시 참고자료 ▲우수교수 선정 ▲교수업적평가항목에 반영되는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행 강의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 활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30.25%), 매우 부정적(20.17%)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긍정적(4.2%), 긍정적(10.92%)이라고 대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 역시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캠 교무과 조종구 계장은 “강의평가를 통한 피드백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 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무처는 교·강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2014학년도에 ‘수시강의평가’를 도입한 바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인해 2015학년도에 폐지됐다.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은 학생과 교·강사 모두가 문제로 꼽았다. ‘교내 강의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의 49.58%가 ‘불성실한 응답’을 꼽았고, 교·강사 역시 주관식 답변을 통해 ‘학생들의

성의 없는 답변’을 문제 삼았다. 동국대는 2013년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학생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객관식 문항을 24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주관식 문항을 기존 1문항에서 2문항으로 늘렸다. 또한 ‘교원 선택가능 문항’을 12개에서 3개로 축소해 총 문항 수를 줄이면서 학생들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했다. 전임교원에는 무력한 강의평가? 강의평가 결과가 시간강사와 전임교수의 처우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직전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없다’는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제 8조(위촉제한)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강의평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전임교원의 경우 강의평가의 결과를 ‘교수업적평가’ 300점 만점 중 ‘강의평가항목(40점)’으로 반영할 뿐이다. 국제캠 교무과 김병균 과장은 “전임교수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는 교수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와 사회봉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로 제재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강의평가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수가 강의평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학생 ‘결과에 따른 처우’에 집중 교원 ‘인사권보다 문항개선’ 학생들은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상·벌제도(3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강의평가 결과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적절한 상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강사 측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강의평가 점수가 너무 낮은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하되,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전임교원에게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을 남겼다. 전임교원 측에선 인센티브 없이 불이익만 존재하는 현재 평가결과 반영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강의평가에 대한 조치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방적인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보다 수업의 질 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강사들은 문항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내쫓았다. 주관식 답변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

다’, ‘교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문항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방안

교무처 측에선 강의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법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선 이미 ‘워크숍’, ‘수업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들에 대한 강제사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교무처 측에선 이와 연계해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사지원과 김경희 부처장은 “강의평가의 평균점수가 일정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현재 검토 중이다”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엔 교수업적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설문에 응한 교·강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 중 ‘그 내용이 실제 수업 개선에 도움됐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7.89%)’, ‘그렇다(42.1%)’라는 긍정적 응답이 ‘전혀 아니다(2.63%)’, ‘아니다(5.26%)’라는 부정적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관식 답변을 통해서도 ‘교수학습방법개선연수 필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측도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에 대한 교수법 이수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상용 계장은 “교무처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강의평가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교원들의 입장에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학생, 교·강사, 그리고 학교 측에선 강의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도입을 준비 중인 교수법 이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나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문항개편에 있어서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소통을 통해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중앙도서관 연중기획 '책읽기의 즐거움' 내가 만난 세상 제19회 『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 공모

중앙도서관에서는 경희구성원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9회 다독 및 노트 습관화하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 내용: 다독(도서대출) 및 독서노트 작성
- 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대학원)
- 기간: 2017. 5. 1(월) ~ 11. 5.(일)

독서노트 작성

- 책을 읽고 간략하게 "독서노트"를 작성(100자 이상)
- 작성양식: 홈페이지 로그인 → 읽은 책 도서검색 → 해당도서 독서노트 쓰기

발표

- 수상자 선정: 독서노트 작성 건수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
- 당첨자 발표: 2017. 11. 14.(화) 예정

상상

- 최우수상 ..... 1명(상품권 20만원)
- 우수상 ..... 6명(상품권 10만원)
- 입선 ..... 12명(상품권 5만원)

유의사항

-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이미 발표되거나 제출된 작품, 표절물,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작 중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독서노트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수상 후에도 표절 또는 모방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 취소와 상금을 회수 조치함
- 제출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됨

문의사항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 031-201-3213)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2017학년도 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청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십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 (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7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 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jp@khu.ac.kr](mailto:gj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 교재 만들고 온라인 강의도 도입 … 변화 꺾이는 빅문

##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⑤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팀 티칭’방식과 ‘평가방식’, ‘강의 외부적 환경’등 빅문의 과거와 현재를 짚었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빅문의 미래’에 대해 짚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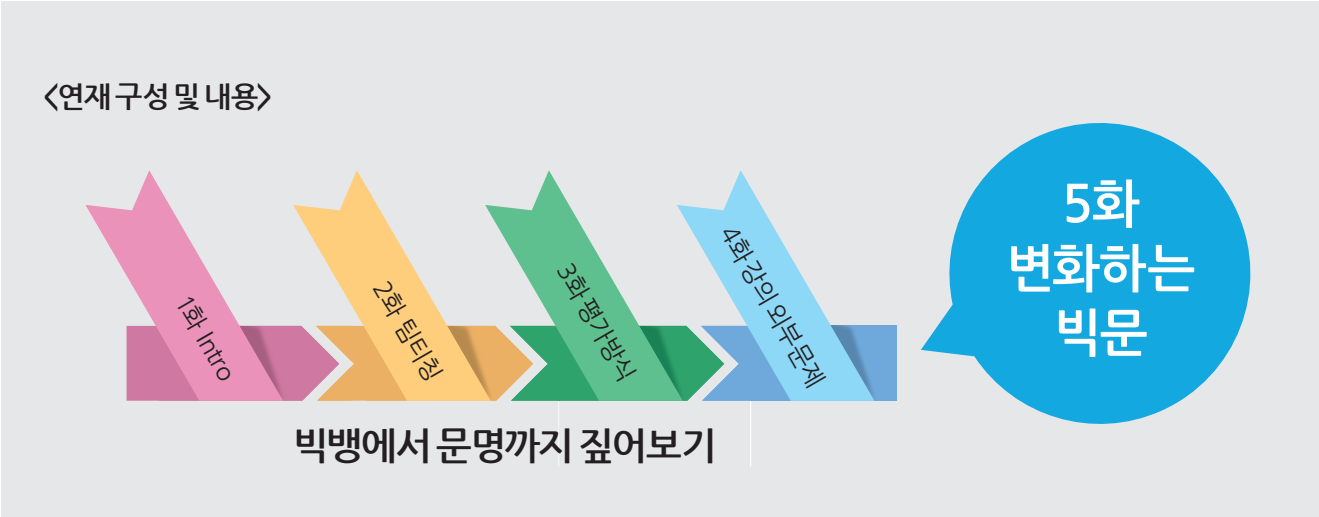
### 공식교재 도입 의지 모였으나

### 학기 초에 비해 ‘진전 없음’

이번 학기가 끝나감에 따라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은 현재 크고 작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확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교재도입’과 ‘온라인강좌의 도입’이다. 연재기사에 짚었던 ‘팀 티칭’방식과 ‘평가방식’, ‘강의 외부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대두된 ‘교재 도입’은 빅문의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빅문 강의는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수업마다 가르치는 교수님도, 주제도 달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보니 학생에게는 교재의 공백이 더 크게 다가왔다. 팀티칭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각 수업 간 연결고리의 부재를 ‘교재 도입’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누어 교재를 도입한다. 주교재는 학교차원에서, 부교재의 경우 빅문 교수 선에서 만들어지며 전체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주교재는 현재 빅문에서 사용하는 PPT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재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해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유정완 학장과 빅문의 기획에 참여한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원래 설계 때부터 교재를 도입하고자 했었다”며 “서울캠과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하나의 통



5화로 예정돼 있던 ‘빅문, OO이 말한다’는 보다 나은 보도를 위해 해당 기사로 대체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합 교재를 만들려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현재 교재 제작 상황에 관해 빅문 총괄을 맡고 있는 송재규(화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캠과 국제캠에서 원고를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기 초 교재 제작 상황에 비해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에서 다음 학기 후반 혹은 내년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 예정에 있는 것은 ‘부교재’형식의 보조 자료다. 부교재의 내용과 진행현황에 대해 빅문 기획을 맡았던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이번 학기 첫 강의부터 출판사에서 와서 녹취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추후 녹취본과 강의 PPT,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모아서 책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강좌의

도입’이다. 이는 중핵과목으로서 유례없는 시도다. 빅문은 기존 중핵과의 차이 때문에 설계 때부터 온라인 강좌의 도입을 염두에 뒀다. 다만 다음 학기에 온라인 강좌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추진속도에 따라 도입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 과학교과 특성 살리고

### 유학생 배려하기 위해

### 중핵교과 첫 온라인 강좌 도입

후마 유정완 학장과 빅문의 PD 송재규(화학과)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의 ‘인간의 가치탐색(인가탐)’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와 달리 빅문이 온라인강의의 도입을 채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

다. 먼저 과목 특성상 온라인강좌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다. 후마 유정완 학장은 “과학교과의 특성상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이버 상에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온라인 강좌가 개발되면 대외적으로도 공개해 명품강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의 보다 원활한 빅문 수강을 위해서다. 인가탐의 경우 이번 학기에 개설된 총 73개의 강좌 중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강좌가 6개이며 외국인 유학생 전용강좌가 1개, 영어로 이뤄진 강좌가 1개이다. 총 8개의 강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셈이다. 그러나 빅문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이래 유학생 전용강좌가 개설된 바 없어 많은 유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권영균(물리학과) 교수는 “과학을 한국어로만 가르치다보니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며 “온라인 강좌를 도입하되 영어 자막을 삽입해 유학생들에게 보다 원활한 강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설계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 강좌의 수강생 범위에 대해서는 빅문 PD 교수진과 대학본부 사이에 의견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빅문 PD 교수진 측은 “내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강좌가 내국인 학생들에게 줄 학습적 측면의 이익이 더 크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후마와 대학본부 측은 일부 내국인 학생에게도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자는 의견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시험적으로 내국인 학생에게도 제공하고, 적정규모와 방식을 점차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학생만 vs 내국인도

### 온라인 강의 제공 범위는 미정

학생들 또한 온라인 강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유경(언론정보학 2016) 양은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더 집중할 수 있고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히려 편하다”라며 “표면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강의가 아닌 만큼 유학생만 온라인 강의를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예지(아동가족학 2016) 양은 “온라인 강좌 수강생들은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형평성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희진(언론정보학 2016) 양 또한 “온라인 강좌가 도입된다면 수강신청도 원활해 질 것이고 온라인 강좌 수강생만큼 오프라인 강좌의 인원이 감소해 한 강좌 당 인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실했다.

빅문은 그 등장만으로도 이례적이며 새로운 시도였다. 타 중핵과는 다른 운영방식, 강의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빅문은 낯설 수밖에 없다. 낯설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낯설을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지속한다면 혼란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의 빅문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신중히 접근해 후마의 새로운 도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 1. 신청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 신 · 편입학생

※ 2017-1학기 신입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 2. 1차 학생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

※ 일 ·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7.05.17.(수) 09:00 ~ 06.20.(화) 18:00

###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익일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5.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상담센터 1599-2000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 장학사업 1차 신청안내

### 1. 장학명

국가교육근로장학

### 2. 장학목적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나. 직업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공

### 3. 주요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가. 교내근로 :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 시간당 9,500원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1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 4.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생 통합신청 일정과 동일

###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6. 안내사항

가. 2017-2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

유형(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 분야) 참여 가능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제외

나. 2017-2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 동안 2017-1학기 장애평가 도우미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학생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

###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 1599-2000

학생지원처 장학팀 / 한국장학재단

##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17.06.01(목) ~ 06.27(화)

2. 대상 : 서울 · 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7.07.03(월) ~ 07.05(수)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 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7.06.15(목) ~ 06.29(목), (단, 06.25 ~ 06.27 제외)

※ 성적인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7.07.03(월) ~ 07.05(수)

###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당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보도

사과 · 소명에도 새터 후폭풍 여전, “학생회장단 사퇴하라” 요구도

문과대 새터 관련 논란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서울】지난달 31일, 올해 초 논란이 된 문과대학의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에 대해 문과대 학생회가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7 새터 모든 것을 말씀 드립니다’란 이름의 대담회에서 문과대학 학생회 김기범(국어국문학 2015) 부회장이 나서 새터 결산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문과대학운영위원회 몇몇은 여전히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문과대 새터 이후 우리학교 페이스 북 익명제보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신 전해 드립니다(경대전)’에는 ‘경희대학교 49대 문과대학 학생회장단을 규탄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로는 적자를 비롯해 일반 투숙객 난동, 중앙규찰대 운영 미숙, 그리고 침구류 부족 등이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새터 문제는 전적으로 학생회장단을 비롯해 중앙기획단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며 “불편을 겪은 문과대 새터 참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논란이 발생하고 약 4개월 만이다.

가장 문제가 된 ‘새터 적자’ 건은 예산 외 초과지출액 425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학 학생회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담회에서 공개된 ‘2017 새내기 새로배움터 보고서용 총결산’ 자료에 ‘적자’로 표현된 초과지출액 대부분은 교비에서 지출됐다. 문과대학 학생회는 교비로 추가지출 된 335만 원에 대해선 사비로 행정실 측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치회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는 단순히 수입액과 지출액을 나열하고 ‘추가지출 항목 및 금액’만 명시돼 있을 뿐, 본래 예산안과 비교할 수 없어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는다. 또한 항목 당 초과지출 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김 부회장은 새터 기간 중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수인계를 꼼꼼히 하겠다”고 소명했다. 문과대학의 새터는 첫날 영어학부가 일반 투숙객과 같은 층을 사용하면서 학생과 일반 투숙객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던 바 있다. 또한 예정된 중앙규찰대 인원이 모이지 않아 규찰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330여명이 참가한 새터 첫날 숙소에서 구비된 침구류는 50여개에 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김 부회장은 해당 사안들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꼼꼼히 하겠다” 이상의 계획을 들을 수 없었다.

새터 직후 경대전에는 새터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학생회장단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언급하며 “사퇴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당장 이과대학 공실 사용 문제 등 문과대학이 당면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과제들을 맡아서 함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사퇴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적극적인 입장표명 이후에도 문과대운영위원회 내부에선 사퇴요구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이후 문과대학 학생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담회에서 공개된 새터 관련 보고서는 문과대학 학생회 블로그와 페이스 북 페이지, 각 학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열린 문과대 대담회에서 김기범 부회장이 논란에 해명하고 있다. (사진 = 류제원 기자)

대학가 ‘악습’ 졸업반지, 간호대가 먼저 없앤다

간호대 졸업반지 폐지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서울】간호과학대학 48대 학생회는 악습으로 불려온 졸업반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졸업생부터는 졸업반지를 받지 않고 재학생들은 그동안 지출해야 했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간호학과와 의 졸업반지는 선후배간 위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4월 6일 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경희대학교 대나무숲(대숲)’에 ‘단돈 3만원에 제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라며 졸업반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간호학과 2학년이라 밝힌 작성자는 “더 이상 이런 악습을 두고 볼 수 없어 글을 썼다”며 “액수와 상관없이 정당한 절차와 설명 없이 원하지 않는 학생의 돈을 사용한다면 재산권 침해며 부당하고 부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느냐”는 댓글을 달았고, 졸업반지는 학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비난의 대상 졸업반지 “재산권 침해, 부당하다”

간호학과 학생회 진수현(간호학 2015) 회장은 “간호학과와의 졸업반지는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른 채 이십여 년째 전해왔다”고 설명하며 “이전부터 졸업반지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여론이 갈리는 등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간호학과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그랬다. 4학년을 대상으로 졸업반지 수령 찬반여부를 묻자 응답한 68명 중 53명이 졸업반지를 원해 간호학과는 올해도 졸업반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졸업반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학내에 다시금 형성되면서 현 학생회장단을 비롯해 학과장, 학생주임, 행정실장 등이 모여 졸업반지 폐지를 결정했다. 진 회장은 “졸업반지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된 것이만큼 올해는 해결을 보자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지 결정 후에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간호대학 학생회 정지섭(왼쪽) 봉사국장과 진수현(오른쪽) 회장 (사진 = 류제원 기자)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재학생이 지출해 온 돈의 환불 방안이었다. 매년 간호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은 학년별로 각각 35,000원, 30,000원, 30,000원을 지불한다. 이 돈을 모아 해당년도 졸업생 반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 학년이 80~90명에 달하기 때문에 각 학생이 그동안 지불한 돈을 돌려주려면 1,500여 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학년 높을수록 폐지 반대 공금으로 손해 보전하기로

학생회가 내놓은 대안은 학생들이 얼마간의 손해를 떠나는 방식이다. 학과 내 5월 초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학년의 95.8%, 2학년의 70.7%, 3학년의 63.2%, 4학년의 56.1%가 손해를 전제로 한 졸업반지 폐지에 찬성했다. 진 회장은 이에 대해 “학년이 높을수록 그동안 낸 금액이 많아 보상심리가 나타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지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정지섭(간호학 2014) 봉사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개인당 손해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학생회비에서 1인당 5,000원을 지원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 내년도 축제 수익금 등도 사용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졸업을 앞둔 4학년은 55,000원을 돌려받는다. 1, 2학년의 경우 5월에 25,000원 씩 반환이 완료됐다. 3학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내년에 25,000원을 돌려받는다. 진 회장은 “3학년에 지급할 금액은 내년 축제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2, 3, 4학년의 경우 40,000원, 1학년은 10,0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신지우(간호학 2016) 양은 “우리가 손해를 본 건 맞지만 지금이라도 폐지된 게 기쁘다”며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2학년 학생은 “지금까지 이 통을 얹어지 않고 후배들에게 폐만 끼친 선배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특히 대숲에 졸업반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졸업반지를 두둔하던 댓글들이 잊히지 않는다”라며 비난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간호학과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가진 과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간호대의 졸업반지 폐지가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2017. 7. 3.(월)~ 8. 11.(금)

◆ 접수기간: 2017. 6. 12.(월)~ 2017. 6. 30.(금)

Level Test

◆ 영어회화: 6. 27(화), 6. 28(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6. 27(화)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19:2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 Intermediate/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후반 14:00~16:00 (화)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Academic Writing Workshop		Business English Skills Series	TED Talk
	수강료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중급1 / 중급2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중급2	초급1 / 중급1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오전반 07:45~08:45 (월, 수)	오전반 09:00~10:30 (화, 목)	오후반 17:30~19: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1	중급1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8:00~20: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LEAP Program

가. 접수기간: · 1차-2017. 6. 1.(목)~ 6. 21.(수) / · 2차-2017. 6. 1.(목)~ 7. 19.(수)

나. 강의기간: · 1차-2017. 6. 26.(월)~ 7. 20.(목), 4주 / · 2차-2017. 7. 24.(월)~ 8. 18.(금), 4주

다. 프로그램 일정

	1차	2차
LEVEL TEST	2017. 6. 21.(수) 17:00	2017. 7. 19.(수) 17:00
입교식	2017. 6. 26.(월) 10:00	2017. 7. 24.(월) 10:00
Game Day	2017. 7. 6.(목)	2017. 8. 3.(목)
수료식	2017. 7. 20.(목) 13:00	2017. 8. 18.(금) 13: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강의대상	LEAP	초·중급 영어 구사자
	LEAP Advanced	중·고급 영어 구사자
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or오후) : 330,000원 Full-Day Course(오전+오후) : 595,000원	

※ 1, 2차 연속 수강 시: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장학혜택 부여

라. 강의시간표

강좌시간	LEAP	LEAPAdvanced
10:00 ~ 11:20	English Conversation	Discussion & Debate
11:30 ~ 12:50	Reading the World	Book Club
14:00 ~ 15:20	Screen English	Academic Writing
15:30 ~ 16:50	Practical Writing	Talk Like Ted

※ 월~목(주 4회) / 1일 6시간

※ 일정 및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

· Full-Day Course 수강 시, 성적, 출석 80% 이상일 경우, 영어1/대학영어 면제 (서울캠퍼스 학생에만 해당)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 교육적폐 청산과 대학의 미래

교수 칼럼

이기라

후마니타스칼리지



검찰개혁, 국방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이고 지난 정부 9년 동안 강화된 적폐 청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 관급 인사를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재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혹시 교육개혁, 특히 대학개혁은 우선순위에서 함참 밀린 것은 아닌지 조금씩 염려가 되기 시작한다. 대선 공약에도 고교 무상교육 및 서열화 해소, 반값등록금, 공공기숙사 확대 등 중등교육과 교육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많이 보였지만, 교육적폐 청산과 대학개혁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질은 별로 좋지 않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을 질을 높이는커녕 돈을 매개로 대학들을 줄 세우기에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대학 관련 정책, 재정,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해서 대학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예속시켰다. 학생 평가, 졸업생 취업률, 입학정원 축소, 교원연구업적 등은 거의 모든 사업에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늘 이런 평가지표들을 ‘관리’해야 한다.

각각의 평가지표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왔는지 짚어보자. 우선 학생 평가 항목은 대학들



지난해 10월 19일 이화여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학사행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현장 (사진=중앙일보)

이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평가 지표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상위 30% 미만 성적의 학생에게는 B+ 이상의 학점 입력 불가. 전 세계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기까지 한 학생 평가제도이다. 학점별로 더 촘촘하게 비율을 정해놓은 대학들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미 초등학교부터 경쟁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이 한 가지 상대적 기준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평가방식 하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시민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졸업생 취업률과 입학정원 축소 지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취업률과 정원축소는 대학을 산업에 필요한 인력만을 배출해야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특히 취업률이 핵심적인 평가지표였던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기상천외한 이름의 ‘융복합’ 학과들을 탄생시켰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융합보안공학과, 스

마트온행체공학과 등등. 교원연구업적은 소속 교수들이 한 국연구재단 등재지나 해외 SCI급 저널에 얼마나 많은 연구논문을 실었는가가 핵심이다. 저서나 역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논문만 해당된다. 이 평가지표를 올리기 위해 대학들은 채용기준에서부터 승진자격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논문을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1년에 두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해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는 교육의 포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연구의 포기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기존 논문중심의 교원업적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을 포함시켰다. 이후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수주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흐름에서 일부 교수들은 ‘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재난적 정책추진을 정당화시켜주었다.

지난 3월 9일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 바로 전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일정을 밀어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슈화가 되었지만 입학정원 축소와 통폐합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은 이미 2주기에 접어든 사업이라 그런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학 구조개혁에도 당연히 입학정원 축소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와 졸업생 취업률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학의 문제들을 더 열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부가 나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왜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고 대형 강의는 늘어나는 결과?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수들의 처우는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결과? 여기저기에서 적폐를 이야기하고 청산을 외치는데, 대학정책과 관련된 교육부의 적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한 마디 보태고 싶다. 교육적폐 청산을 절대 미루면 안 된다고 말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이화여대의 정유라 부정입학과 ‘미래라이프대학’에 있었음을 기억하자.

## 참여마당

남효형  
(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3)



## 망설임을 넘어 자유로운 세상 위해 필요한 것

평소에 상대방과 각자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막상 자리가 마련돼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친다. 끈질기게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토론은 내가 물렸거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과 충돌하는 과정이다. 대학생에게 권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소통에 부합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생활에서 유리돼 있을까? 매일 많은 사람과 말을 하지만 내 생각에 대해 말하는 건 몇 마디 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소소한 대화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토론하듯 자신의 주장을 꺼내며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다. 그러한 자리가 있더라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다른 주제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론은 수업에서 교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수업과정에 가깝고,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 토론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연히 독서소모임에 참여하게 돼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한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과정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덧 3년이 돼간다.

### 토론이 좋아 시작한 독서소모임

#### 삶의 태도를 정비하는 힘

독서토론의 가장 좋은 점은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비난 없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집요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 편견을 부수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발언하는 것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의 생각을 직접 말하면서 문장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때도 보다 논점을 이해하기 수월해진다. 여러 주제와 이슈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생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죽음에 대한 태도, 사랑의 가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등 일상생활이나 혼자 있을 땐 깊게 생각할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해 내 의견을 만들고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준비라는 마중물을 통해 서로의 말에 집중하고 반박하며 질문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 가벼운 시작으로 독서토론이 체계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며 토론에 기준점이 되는 텍스트를 공유하고 주제를 정하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책만큼 다양한 영역의 토론도 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생각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서토론 활동을 할지말지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좀 더 많은 토론의 장이 생기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대화가 많아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나아가 서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 2017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강희망과목담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의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수강희망과목담기?!

가. 제도개요

- 차기 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중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소정기간 중 미리 선택해 놓아 실제 수강신청 시 수강희망과목담기에 담아놓은 강좌에 대해 신속하게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말함

나. 희망과목담기 유형

- 수강희망과목담기는 “희망과목담기”와 “예비과목담기”로 구분하여실시됨

1)희망과목담기

- 본인의 수강희용학점범위 내에서 실제 수강신청 조건과 유사하게 강좌 선택 가능
- 동일 과목명의 강좌는 중복하여 선택되지않음
- 현행은 전공별 강좌 개설 및 여석 배정을 위한 수강수요 기초자료로 활용

2)예비과목담기

- 희망과목담기 외로 10과목까지 선택 가능
- 동일 과목명 강좌의 중복 선택 가능
- 수강수요 측정과는 관계없이 단순 수강신청편의 제공용

※ 희망과목담기 또는 예비과목담기로 담아놓은 강좌를 실제 수강신청하는 방법은 두 담기 방법이 동일하나, 수강수요 파악을 위해서 학생이 실제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는 희망과목담기에 담아주시기를바랍니다.

### 2.실시기간

- 1차: 2017.06.19(월) 10:00 ~ 06.29(목) 17:00
- 2차: 2017.07.19(수) 10:00 ~ 07.21(금) 17:00

### 3.참여대상:서울·국제캠퍼스재학생및북학예정휴학생

※ 휴학생 중 2017학년도 2학기 에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은 강좌에 대한 수요예측을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17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서울특별시·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대출 생활비(대출 모두 포함)

#### ※ 서울지역 대학생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교)에서 졸업한 미취업 청년(졸업한 후 2년까지)

#### ● 사업명: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지역 대학생

● 지원범위: 대출 당시 소득분위 기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 지원	차등 지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후 지원

※ 차등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정함.

● 지원내용: 현재 재학(휴학) 또는 졸업한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지원

● 신청조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에 한함.

● 신청기간: '17. 6. 1(목) 09:00 ~ '17. 6. 30(금), 18:00

● 접수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대상자확정 및 원리금 상환: '17년 10월 이후 예정임

● 이자지원방법: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 서울특별시



인터뷰

한 그릇 음식에 담기는 젊은 농부의 열정과 정성

농사꾼 한상원, 노보원 동문 인터뷰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의 발길이 끊겼던 강원도 춘천시 육림고개 상권이 젊은 창업가들의 손길로 온기를 되찾았다. 생활한복, 꽃 막걸리, 빵집 등 여러 가게 중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간판, ‘어쩌다 농부’가 눈에 들어온다. 젊은 농부 3명이 지난해 11월 개업한 이곳은 손수 재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식당으로, ‘건강한 음식’ 이미지로 많은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어쩌다 농부의 대표인 한상원(유전공학 2008) 동문과 노보원(유전공학 2012)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들은 정말 ‘어쩌다’ 농부가 됐다. 여느 대학생처럼 학업과 잦은 술자리로 인해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먹을 것을 좋아하던 한 동문은 신선한 식재료를 만든 좋은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귀농 하신 부모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농지가 떠올랐고, 직접 농사를 짓게 됐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소를 재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는 한 동문은 “농사를 짓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금세 지쳐 그만 포기할 줄 아셨는지 제 뜻대로 해보라 하셨어요”라며 농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렇게 뜻이 맞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세 명에서 ‘불꽃 농부’라는 이름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어쩌다’ 신선 식재료 찾게 돼

초짜 농사꾼의 길로

부모님의 예상을 배신하고 한 동문은 농사일에 매달렸다. 이왕 ‘음식다운 음식’을 위한 길에 정말로 자연에 가까운 농산물을 재배하고 싶었다. 유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농약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친환경 농법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친환경 농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이론을 익혔고 직접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방문해 실질적인 농사법을 익히기도 했다.

부모님이 귀농 후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한 동문 자신은 농사일에 관심이 없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지식은 배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다. “이렇게 고생해서 농



춘천시에 위치한 ‘어쩌다 농부’ 매장(위쪽) 한상원 동문과 노보원 동문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왼쪽) 이들은 직접 제철 농작물을 재배한다

사를 지었는데 첫 해에는 결과물이 좋지 않았어요. 당근을 심었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50여 종을 심었는데 잡초가 가득 자란 밭을 만들었어요” 한 동문은 지난 고생을 담담히 말했다.

땅은 노력에 보답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작물을 얻게 됐다. 수확물을 동네 주민들과 아는 지인을 통해 조금씩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다 서울 DDP에서 열리는 농산물 시장을 통해 자식과도 같은 농산물을 처음 일반 소비자에게도 선보였다.

한 동문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일반 농작물보다 크기가 작지만 맛은 더욱 좋기에 소비자의 마음을 이끈 거

같아요”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때쯤 농산물 판매만 담당하던 노보원 동문도 농사일에 동참하게 됐다. 소비자들에게 농작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 과정과 농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다.

잡초만 가득히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농부이자 요리사

춘천에 자리한 ‘어쩌다 농부’는 자신의 농산물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차린 식당이다. 인터넷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했

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한 동문은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농산물을 사람들에게 맛보이고 싶었고, 소비자와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면서도 도심과 가까운 곳을 모색하던 중 춘천시에서 구 도심 부활을 위해 젊은 창업가들에게 창업 지원을 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춘천 육림고개에 가게를 내게 됐다. 제철 채소를 이용해 요리를 선보이기 때문에 메뉴는 계절마다 달라진다. 가령 지난겨울에는 들깨수제비, 올 봄에는 달래된장말뚥을 선보였다. 좌석 16개, 아담한 가게에 주문과 함께 요

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재료부터 요리까지 듬뿍 담긴 정성을 맛보기 위해 손님이 줄을 잇는다. 메뉴 개발은 주로 노 동문이 맡아서 한다.

“전문적인 요리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먹는 걸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요리와도 가까웠어요. 제철 채소를 신선하고 건강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식 요리책을 주로 참고하고 여러 음식을 직접 해 먹다 보면 괜찮은 요리가 탄생하게 돼요” 노 동문에게서 요리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힘든 점은 없냐고 묻는 질문에 한 동문은 심리적인 것이, 노 동문은 체력적인 부분이 힘들다고 말한다. 한 동문은 “아무래도 수입이 좋지 못했을 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택한 친구들을 보며 부러웠어요”라고 말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인지 식당 일과 농사일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같아요”라는 노 동문은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라고 말했다.

이런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손님의 ‘빈 접시’다. 손님이 맛있게 비우고 간 빈 접시를 바라보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간도, 식재료를 얻기 위해 휴식시간 틈틈이 밭으로 달려가 농사일을 하던 시간도 모두 보상 받는 기분이다.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수많은 블로그를 통해 퍼져나가고 진심을 맛보기 위한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들과 같은 젊은 농부와와 소통을 통해 친환경 농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싶기도 하다. ‘어쩌다 농부’가 됐지만, 누구보다 큰 열정으로 농사일에 매진하는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 된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admission.dgist.ac.kr

#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전형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목)~7.13(목)	10.12(목)~10.26(목)	12.14(목)~12.28(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목)	11.9(목)	11.11(목)
면접 평가	8.7(월)~8.14(월)	11.13(월)~11.21(화)	11.15(월)~11.22(월)
합격자 발표	8.28(월)	12.4(월)	11.29(금)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로봇공학전공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리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http://admission.dgist.ac.kr)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F 선발 (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기숙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 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Virginia 대학) ·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소속 11개 센터 및 연구실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서울지역 입학설명회

6.23(금) 13:00~18:00  
엘타워 B1층 루비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 전공별 간담회 등

전공 오픈랩

9.23(토) 12:00~17:00  
DGIST 컨실리언스홀 L29(대강당)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 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비 지급 및 간단한 중식, 기념품 제공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DGIST 서울홍보센터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mailto: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http://www.dgist.ac.kr/virtualtour)

문의처 T. 053-785-5146~7 | E-Mail [admission@dgist.ac.kr](mailto:admission@dgist.ac.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